유레카 발표 스크립트: 우리가 생각한 미래 모습들

오늘은 저희 조가 생각한 미래의 모습들에 대해 발표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미래에 대해 상상하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들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조원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각자 미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고, 그 모습들은 당장 몇 년 안에 상용화가 가능할만한 기술도 있고, 지금 보면 막연하게만 느껴질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런 모습들이 실현된다면 저희의 삶이 정말 풍부해 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런 모습들을 상상해보았습니다. 저희는 환경, 기술, 의료로 총 3가지 분야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분야입니다. 미래의 드론 기술을 활용하여 건물의 옥상을 정원으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입니다. 드론은 물 공급, 온도.습도 조절, 생장 상태 분석을 자동으로 수행하여 식물의 최적 생육 상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열점 현상 완화와 미관 개선 및 지구 온난화 예방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기술 분야입니다. 공간 전체에 퍼진 무선 전력망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등 배터리가 있는 기기에 자동으로 충전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동됩니다. 방 안의 벽, 천장, 바닥에 설치된 송전 장치가 일정한 전자기장을 형성하고, 기기 내부의 수신 모듈이 이를 전기로 변환하여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충전 패드 위에 올려둘 필요도, 케이블을 꽂을 필요도 없이, 단순히 공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완전한 무선화된 생활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분야입니다. 이 기술을 줄기세포 줄기세포가 장착된 나노로봇을 통해 상처 부위를 치료할 수 있다. 더이상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반투명 캡슐 속에 들어있는 나노로봇은 몸 속으로 흡수되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치료가 필요한 부위가 생기면 해당 부위로 이동, 망가진 세포는 제거하고 해당 부위에 필요한 세포로 줄기세포를 분화시켜 이식합니다. 이 캡슐 한 알이면 더 이상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캡슐 하나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이른바 만병통치약이 등장하는 것입니다.